마도서대전 TRPG 마기카로기아 창작 시나리오

이중나선의 날개

w.천가유



(시나리오 카드는 @moon0nthetable님 지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시나리오 정보

- 계제: 4계제 (공적점 15점~ 50점)
- 인원: 4인
- 리미트: 3사이클
- 룰북: 대형판+황혼선서
- 개요:
- 이중나선으로 이루어진 날개를 본 적 있나요? 빛을 담뿍 흡수한 투명한 비늘이 층층이 쌓여 부드럽고 영롱하게 반짝이는 풍경, 아름다운 나비의 춤. 그 나비의 날개를 우리도 가질 수 있다면. 여기, 당신의 등에 이중으로 꼬인 나선이 날개처럼 돋아난다면. 그것이 당신을 하늘로 인도한다면요.

  ※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에서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 벌레 묘사가 나옵니다.

※ 마법사의 선택에 따라 상흔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독자적인 장서가 등장합니다.

배경:

체코 공화국에 위치한 체히 지방에서 실종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람이 사라지는 일이야 늘상 있어 왔습니다만 이번에 발견된 기묘한 허물 때문에 체코 정부는 마법사의 파견을 요청하게 됩니다. 치사량의 피, 등이 갈라진 채로 남은 인간의 거죽, 실종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건의 시작은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언이 떨어졌습니다. 크레도의 탑에서는 이번 사건에『새로운 금서의 탄생』이 예고되었다고 전합니다. 그 갓 태어난 금서를 봉인하지 못하면 커다란 재액이 체히 지방을 덮칠 것이라고요. 마법사들은 천애와 문호의 요청을 따라 거대한 고목을 한 가운데 둔 어느 도시로 향합니다.

새로운 금서가 탄생하게 된 것엔 두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 뿌리내린 고목이자 거목, 헤데라의 의지입니다. 과거 수많은 생의 보금자리였던 헤데라는 도시가 개발됨에 따라 하늘에는 매연, 땅에는 오염수가 흐르며 나무 대신 빌딩의 숲에 둘러싸이게 된 작금, 본인의 의지마저도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인간들이 끊임없이 발달을 꾀한다면 그것을 그릇된 형태로 돕겠다고 말이죠. 헤데라의 의지는 단장「개화」를 탄생시킵니다.

한편 이 지방에 살고 있던 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그레타. 태어나면서부터 '유별난 아이'라는 소리를 들어 왔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느리고, 사회에 녹아들고 섞여들기보다 유리되더라도 자유롭고 싶었던 그는 자라남에 따라 이 갑갑한 사회에서 벗어나 해방되고 싶은 열망을 키웠고 그 형태로 날개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단장「우화」를 탄생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우자들을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리고 싶었던 이상향의 마법사 멘델과 그가 만들어낸 단장「수」가 끼어들며 그것들이 하나로 융화될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금서의 탄생은 예정된 미래입니다. 마법사들은 태어날 금서를 회수하고 이 위험한 마법재액을 가져온 그레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등장인물:

그레타: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붉은 곱슬머리, 안경, 주근깨, 작은 키이나 외관은 어떻게 바꾸셔도 좋습니다. 체히서부대학에서 진화생물학을 연구 중인 교수이며 괴짜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을 보는 눈이 남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이 다름을 가족에게 이해받지 못해 가족과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로 내재한 에너지를 해방시키고 싶다는 꿈에 차 있습니다.

"먼 과거에 인간은 비행을 위해서 이카루스처럼 날개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라이트 형제가 바랐던 비행은 정말 이런 거였을까요? 저런 거대한 쇳덩어리에 타는 게 우리 스스로 하는 비행은 아니잖아요. 언제부턴가 인류가 진화를 멈추고 도리어 퇴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두 도구에 길들여져 나태해진 거예요. 나는, 우리가 아직도 날개를 가질 수 있으리라 믿어요."

멘델: 한때는 대법전의 마법사였던 서적경입니다. 모든 우자들을 마법사로 각성시키는 것이 대법전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뜻이라고 생각하였으나, 대법전은 목표에 비해 너무나 미온적으로 움직였고 그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유로운 연구를 위해 이상향으로 학파를 옮깁니다. 그렇게 혼자 연구를 이어나가던 중 우연히 그레타를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좋은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사람이 날개 달린 괴물로 변하는 이번 마법재액은 순전히 그레타의 업적입니다. 다만 멘델 또한 비슷한 마법을 독창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계상'입니다. 멘델은 자신이 가진 단장과 그레타가 만든 단장이 합쳐져 새로운 지평을 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샘: 그레타의 어머니입니다. 보통 아이와 달랐던 그레타를 사랑하고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어서 한때는 노력했으나 실패하고 그 뒤로 남들이 하는 모습을 흉내내 자신만이라도 '보통 어머니'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껍데기의 사랑이라고 해도 긴 세월 지켜왔다면 진짜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레타는 이런 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정말이지 다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샘은 그런 그레타에게 공포를 느끼고 그를 부정하고 싶어집니다.

쿠피도: 그레타의 연인입니다. 남들과 다른 독특한 면에 끌렸을까요.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그레타를 포기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종 영문을 알 수 없는 말을 하던 그레타가 자신은 안중에도 없이 멀리 날아갈 것만 같아 두려움을 안고 있었고 그것이 사실로 나타나자 절망합니다.

도입페이즈::

- 장면**1::** 개화

투둑, 툭. 등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고 그 자리에서 끈적한 점성의 물이 쏟아집니다. 물에 젖은 날개가 뿌드득한 소리와 함께 기지개를 켜듯 펼쳐집니다. 허물을 벗은 그 모습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낯선 곤충입니다. 광택이 나는 눈을 데굴데굴 굴리던 그것은 금세 날개를 말리고 하늘을 날아 사라집니다.

피에 젖은 인간의 겉껍데기만이 덩그러니 남습니다.

- 장면**2::** 예고

여러분은 천애의 마법사의 호출을 받아 모입니다. 천애의 마법사는 모인 마법사들에게 “새로운 금서의 탄생을 예지했다.”고 말합니다. 해당 금서는 인간을 한 단계 위의 존재로 만들어버리려 하나, 그것은 대법전이 간망하는 형태와 다른 몹시 위험한 것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천애의 마법사는 여러분에게 금서의 회수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금서의 탄생이 있으리라고 예지된 체히 지방으로 향하게 됩니다.

(*GM: 금서가 탄생하지 않는 미래는 없습니다. 반드시 태어나고 말 금서가 다른 재액을 일으키기 전에 회수하는 게 천애의 부탁입니다.)

거대한 고목을 중심으로 조성된 인공 숲이 도시 한가운데 자리한 체히 지방의 한 도시입니다. 문호 지부와 협력관계를 맺고 마법사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경찰 헤르만이 여러분의 조사를 돕기로 합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목격자 정보와 실종자의 가족을 설명해줍니다.

(*GM: 헤르만은 마법이라는 것을 100%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의로운 성격으로 이 미스테리한 문제를 해결해줄 여러분에게 성실히 조력합니다.)

초기 핸드아웃「밤의 목격자」,「실종자의 가족」이 공개됩니다.

메인 페이즈**::**

(*GM: 실종자의 가족 핸드아웃 조사 후 실종자의 대학에 가보겠다거나 지도교수에 대해 물어보는 등 마스터가 보기에 합당한 조킹을 하였을 경우 「그레타」 핸드아웃을 먼저 공개해도 좋습니다. 이 경우 「그레타」의 비밀은 장면표가 [헤데라]로 바뀐 뒤에—조건을 충족하여야 조사가 가능해진다고 전해주세요.)

- 마스터 장면 **1::** 괴물**?**

조건: 「골목길의 혈흔」의 비밀 공개.

골목길의 혈흔을 조사하던 여러분은 그 혈흔에 미세한 반짝임과 함께 마력이 깃들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비의 인분 비슷한 그것은 어두운 곳에서 야광으로 빛나며 생물의 체내에 들어가면 생물을 변이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계에 이것이 퍼지면 위험하다, 고생각할 적에 여러분의 머리 위로 날갯짓 소리가 들립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곤충입니다. 곤충의 그림자가 여러분의 머리를 덮습니다. 2M쯤 되는 몸, 털이 돋아난 여러 개의 다리, 반투명한 필름과 같은 날개, 도르르 굴러가는 보석 같은 눈동자. ―저것은 무엇이죠?

습격 발생.

- 마스터 장면 **2::** 지나가던 과학자

조건: 모노비스트**?** 와의 전투에서 이겼다.

모노비스트**?**를 쓰러트린 자리에 중년의 남성이 나타납니다.

“오. 훌륭한 솜씨야. 믿기지가 않는군. 이런 괴물을 잡다니. 혹시 자네들만 괜찮다면 그 괴물의 잔해를 내가 가져가도 될까**?** 전부가 안 된다면 팔 한쪽만이라도 좋아**!**”

「괴물의 잔해」, 「멘델」 핸드아웃 공개.

- 마스터 장면 **3::** 낮의 목격자

조건: **2**사이클 개시 시

실종 사건을 조사하던 여러분에게 목격 정보를 말하고 싶다고 경찰의 연락을 받은 한 사람이 쭈뼛거리고 나타납니다.

벌건 대낮에 나비의 날개를 달고 숲으로 사라지는 인간이라니, 제정신이 아닌 것만 같지. 자신 없는 듯 말하는 목격자에게서도 인분 가루가 묻어 나옵니다. 그가 문득 중얼거리는군요. “왜 이렇게 가렵지.”

그가 가리킨 방향에는 도시에 조성된 숲이 있습니다.

「낯선 나비」, 핸드아웃 공개.

- 마스터 장면 **4::** 나비 정원

조건: 낯선 나비의 비밀 공개 후

나비를 따라 다다른 곳에 거대한 나무가 자라 있습니다. 몇 백 년은 족히 된 나무는 이 삭막한 도시에서 숲을 지켜주는 구심점입니다. 나무 아래엔 한 여성이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여성이 여러분을 발견하고 경쾌하게 웃습니다.

「헤데라」, 「그레타」 핸드아웃 공개.

*****여기서부터 장면표 **[**헤데라**]**를 사용합니다**.** 세계법칙 **<**저항 저해**>, <**영적 변질**>**

- 마스터 장면 **5::** 나선의 기로

조건: 그레타의 비밀 공개 후

그레타의 연인과 어머니가 여러분 앞에 나타납니다.

그레타의 연인은 어떻게든 그레타를 원래대로 되돌려 달라고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되찾고 싶다고요.

그레타의 어머니는 저 아이는 더는 내 자식이 아니라며 끔찍한 괴물이 되기 전에 죽여달라고 합니다.

두 사람의 강력한 소원이, 마법이 일으킨 재액의 인과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닻을 내리게끔 합니다. 마법사들은 그레타의 연인 쿠피도와 그레타의 어머니 샘,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반드시 앵커로 삼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위와 같으며 소원을 수리하지 못할 경우 상흔이 될 것을 예고해줍니다.

「그레타의 어머니」,「그레타의 연인」 핸드아웃 공개.

<RP예시>

샘: 나는 그 아이를 평생 봐온 사람이에요. 그레타는 어릴 때부터 아주 작고 굼뜨고 느렸죠. 다른 애들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아니, 그냥 우리랑 세상을 보는 눈이 달랐는지도 몰라요. 하루는 그 애가 학교에 오지 않았단 연락을 받고 해가 지도록 찾아다녔어요. 그랬더니 어디 가 있었는지 알겠어요? 개미 행렬을 구경한다고 한나절을 나무 밑에 쪼그려 있던 거예요. 그 아이는 내 배 아파서 낳은 아이지만 도저히 내 아이 같지 않아요. 그래도 어떻게 장성할 때까지 키워 겨우 집에 도움이 되나 싶었더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연루될 수가! 나는 이제 그 애가 끔찍해요.

쿠피도: 그레타가 남들과 다르다는 건 저도 인정해요. 예를 들면, 그녀는 날개가 갖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는데 하늘을 날고 싶단 이유만이 아니었어요. 등에서 날개가 돋아남으로써 보잘 것 없는 지금에서 벗어나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라 말했죠. 그녀가 바라보는 세상을 저도 공유하고 싶었어요. 같은 풍경을 보고 그녀를 좀 더 이해하고 사랑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녀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괜찮아요. 저는 단지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그레타의 곁에 있을 수 있다면 그걸로 좋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그녀가 손닿지 않는 곳으로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GM: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솔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 이성과 감정에 충돌이 일어나 모순되기도 쉽습니다. 샘이 정말 그레타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레타에게 깃든 단장을 회수하는 것으로 샘의 소원을 이루어준 것일지, 그레타가 죽길 바라는지, 쿠피도는 연인이 꿈을 포기하고서라도 제 곁에 남아주길 바라는지, 완전히 우화한 그레타를 두고 '되찾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마스터와 PL의 판단과 해석으로 자유롭게 소원을 수리해주세요.)

*단장 <우화>와의 전투에서 승리하면 마법사들은 크게 3가지 선택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PC의 선택에 따라 연출이 달라집니다.

- 마스터 장면 **6-1::** 우화

조건: 단장 <우화>와의 전투에서 승리했다. 그레타에게 <계상>을 사용했다.

이대로 우자에게서 단장을 떼어내면 이 우자는 견디지 못하고 몸이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당신은 영혼까지 부서질 위기에 처한 그레타를 구하기 위해, 혹은 인간이 마법사로 변하는 순간을 보기 위해, 아니면 처음 보는 마법을 시험해보고 싶어서 그에게 <계상>을 사용합니다.

세계의 규칙을 거스르는 힘이 이제껏 없던 최초의 나선구조를 형성합니다. 이중으로 된 그것이 사슬처럼 그레타의 몸을 휘감고 옭아매 스며듭니다. 그의 등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며 곧 한 쌍의 나비 날개와 같은 것이 활짝 펼쳐집니다. 부드럽던 피부가 울룩불룩 침식과 융기를 거듭하며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뀌어 갑니다. 눈은 보석으로 변하고 머리카락이 하나하나 섬세한 감각을 지닌 더듬이가 됩니다. 이제껏 본 적 없는 생물입니다.

이 자리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존재가 인간을 벗어나 우화하였습니다.

샘의 얼굴에 절망이 스칩니다. 쿠피도의 눈이 경이로움으로 물듭니다. 그는 지금이라도 이 새로운 존재를 사랑할 것만 같습니다.

그레타가 금서중독의 마법사가 되었습니다. 빙의해제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난이도를 올리고 싶다면 여기서 빙의해제판정을 하지 않고 클라이맥스 이후 판정을 해도 좋습니다.

세 권의 단장이 하나로 모여 고치를 이룹니다. 클라이맥스 페이즈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마스터 장면 **6-2::** 추락

조건: 단장 <우화>와 전투에서 승리했다. 단장의 빙의를 푼다.

한 인간의 영혼까지 침투했던 단장 <우화>를 벗겨냅니다. 끝내 완전한 우화를 마치지 못한 그레타의 몸이 수없이 많은 반투명한 비늘로 바뀌어 부서집니다. 산산이 부서지는 그것들이 마치 광활한 우주에 빛나는 별들과 같습니다. 손으로 잡을 수도 없이 사라져가는 그의 잔해들은 하나하나가 마력을 머금고 있습니다. 이카루스가 추락하던 순간이 이와 같았을까요? 그럼에도 그의 의식은 마지막까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고 싶다고.

소망이 서로 조각조각 나 있던 단장들을 연결하는 매개가 됩니다. 세 조각의 단장이 서로 엉겨 붙어 고치를 이룹니다.

새로운 금서의 탄생이 머지않았습니다.

딸을 보내며 샘이 눈물을 흘립니다. 연인의 조각조차 남기지 못한 쿠피도가 깊이 절망합니다.

- 마스터 장면 **6-3::** 망각

조건: 단장 <우화>와의 전투에서 승리했다. 그레타에게 <망각>을 사용했다.

이 모든 것이 한 인간을 비극으로 이끌기 위한 마법재액에 불과하다면, 불행을 걷어내기 위해 망각을 사용합니다. 그레타의 몸이 수없이 많은 반투명한 비늘로 뒤덮입니다. 평온하게 눈을 감은 모습이 꼭 비늘로 만든 관속에 들어간 것만 같습니다. 빛을 받으며 오색으로 빛나는 비늘에는 하나하나 그가 일궈낸 연구와 쌓아 올린 지식이 새겨집니다. 그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잊기 위해. 인간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윽고 모든 비늘에 망각해야 할 것들이 새겨집니다.

자, 그를 깨워보세요. 관에서 일으켜 세우세요.

쿠피도가 다가가 그를 일으키고 그 입술에 키스합니다. 작은 충격에 그레타를 감싼 모든 비늘이 산산이 부서집니다. 부서진 비늘의 잔해는 기이한 마력을 머금고 고치를 짜냅니다. 숙주를 벗어나고도 소망은 지워지지 않고, 인간을 뛰어넘고자 하는 열망이 금서를 빚어냅니다.

새하얀 고치가 여러분 앞에 나타납니다.

(*GM: 혹시 그레타에게 앵커를 꽂고 운명개입을 하겠다는 PC가 나올 경우 그 또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클라이맥스 페이즈**::**

마법사들은 봉인 결계를 치고 금서와 싸우게 됩니다. 마법전의 선언을 마치면 고치가 갈라지면서 안쪽에서 나비를 연상케 하는 금서가 나타납니다. 그것의 날개는 나선으로 된 구조로 되어 있으며 어딘지 새를, 물고기를, 인간을 닮아있습니다.

금서는 인간을 모방하여 세상 모든 인간을 꾀어내, 그들을 다른 존재로 바꾸려 합니다.

인간이 가진 그릇된 진화욕의 종착점입니다.

엔딩 페이즈::

봉인 결계가 걷히고 나면 체히 지방에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는 기이한 인분도 피도 씻어내립니다. 기묘한 가려움과 간지러움을 느끼던 사람들도 이로써 괜찮아지겠죠. 헤데라의 주변을 맴돌던 나비인간들도 장대비에 의해 날개를 잃고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옵니다. 이는 후퇴일까요?

그들은 모두 입을 모아 나비의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무척이나 아름답고 자유로운 순간이었다고.

개 중에는 돌아올 수 없는 이도 있습니다. 완전히 숲의 아이로 변모한 이들을 어떻게 할지는 대법전에게 남겨진 고민거리가 되겠죠.

그레타 또한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왔다면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가 언제 또 스스로의 힘으로 진화할지 지켜볼 수도 있겠네요. 혹은 방문자의 가능성을 보고 바로 대법전으로 인도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그레타를 각성시켰다면 대법전은 새로운 마법사를 환영합니다. 스스로 인간을 벗어난 우리의 새로운 동료를 환영해주도록 합시다.

어떻던가요, 나비의 춤은? 인간이 스스로 얻어내려던 진화의 실마리는. 흘릴 듯 아름답던 이중나선의 날개는.

핸드아웃 및 에너미 데이터

Handout	Handout
밤의 목격자	
개요	비밀
사건이 일어난 밤, 골목 앞을 지났다고 하는 목격자. 사건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다.	목격자는 말한다. “사람 크기만한 것이 하늘을 날았어요.” “그 자리에 허물만 남았어요.” 「골목길의 혈흔」 핸드아웃 공개

Handout	Handout
2. 실종자의 가족	
개요	비밀

실종자 신고를 한 가족. 실종자의 거죽이 발견된 현재도 가족이 살아 있을 거라 간절히 믿고 있다.	실종자는 인근 대학의 생물학과의 조교였다고 한다. 실종 전날까지도 지도교수와 함께 연구에 매진했다. 사라지기 며칠 전부터 그는 이상한 말을 남겼다. “등이 가려워.” “인류는 너무 나태해지고 말았어.” “진화하기 위해선 그에 걸맞은 노력이 필요해.” (*GM: 인근 대학에 관해 조킹하면 ‘체히 서부대학’이라고 소개합니다. 지도교수에 대해 물으면 ‘그레타’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핸드아웃 공개. 단 비밀은 장면표 [헤데라] 이후)

Handout	Handout
3. 골목길의 혈흔	
개요	비밀

핏자국은 깨끗하게 지워진 채다. 실종자가 남긴 허물은 과학수사대로 넘어갔다. 다만 묘한 마력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에 잔류해 있다.	각인을 불어넣어 조사하자 핏자국이 지워진 자리에 마력이 없으면 알아차릴 수 없는 반짝이는 가루 같은 것이 남아 있다. 나비의 인분 같은 것일까? 머리 위로 그 미세한 입자가 쏟아 내린다. 마스터 장면:: 괴물? 발생.

Handout	Handout
4. 멘델	
개요	비밀
본인을 진화생물학 연구자라고 소개하는 중년의 남성. 정중한 몸짓으로 괴물의 일부를 요구하고 있다.	이상향의 서적경. 마법명은「멘델의 계상법칙」 한 때 대법전의 마법사였던 그는 우자를 한 차원 위의 존재로 끌어들이기 위한 계획에서 대법전은 지나치게 미온적이라 생각하고 독자적인

	연구를 위해 그곳을 나와 이상향으로 향했다. 얼마 전 비슷한 연구를 하는 우자 벗을 사귀고 심도 높은 대화를 나눈 끝에 독자적인 장서를 개발하였다.

Handout	Handout
5. 괴물의 잔해	
개요	비밀
우리가 쓰러트린 괴물의 잔해. 모노비스트와 비슷한 존재 같으나 엄밀히 다르다. 다양한 종의 특징이 그 몸에서 엿보인다.	마법재액에 의해 본래의 형질을 잃어버린 존재. 희미하게 잔류한 마력이 나선 곡선을 그리며 잔해를 둘러싸고 있다. 본래는 인간이었던 것 같다. 다양한 종의 형질을 수집하여 완전 처음 보는 유전자 구조를 이루었다. 이것은 진화인가?

Handout	Handout
6. 낯선 나비	

개요	비밀
본 적 없는 나비 종. 숲을 걷는 당신의 곁에서 날갯짓을 할 때마다 푸르고 검은 인분을 반짝반짝 떨어트린다.	그것이 형태를 바꿔 사람과 나비가 섞인 존재가 된다. 자세히 보니 이중나선으로 만들어진 날개는 족히 2m는 되어 보인다. 의사소통은 할 수 없지만 당신을 습격했던 괴물보다 한결 안정된 모습이다. 그들은 계속해 진화하고 있다.

Handout	Handout
7. 헤데라	
개요	비밀
숲의 한가운데 존재하는 거대한 나무. 몇 백 년은 됐다고 한다. 송악나무의 일종으로 보통의 송악나무보다 크고 웅장하다.	봉토. 단장「개화」가 깃들어 있다. 눈에 마력을 불어넣어 부릅뜨고 살피자 거대한 나무에 무수히 많은 나비인간들이 자리 잡고 앉아 있다.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당신을 향한다.

Handout	Handout
8. 그레타	
개요	비밀
진화생물학을 연구 중인 교수. 30대 후반 여성으로 안경이 눌린 자리에 주근깨가 보인다.	단장「우화」가 빙의해 있다. 빙의심도는 4. 그레타는 이미 우자와 마법사의 경계에 있다. 한 차원 위의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 우화를 앞두고 그는 대단히 심취한 듯하다. 그와 가까이 있으면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특수한 마력의 가루가 상대마저 다른 종으로 바꾸는 마법 재액을 내린다.

Handout	Handout
9-1. 그레타의 어머니	9-2. 그레타의 연인

개요	개요
그레타의 어머니. 소원은「괴물을 죽이는 것」도시에서 벌어진 일련의 실종 사건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나 그 원흉이 딸임을 안다. 저 끔찍한 괴물을 막아 이 이상 딸이 죄를 짓지 않길 바란다. 이 핸드아웃에 비밀은 없다.	그레타의 연인. 소원은「연인을 되찾는 것」도시에서 벌어진 일련의 실종 사건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나 그 원인이 연인임을 안다. 다른 존재로 변하려 하는 연인을 두렵게 여기면서도 여전히 깊이 사랑한다. 이 핸드아웃에 비밀은 없다.

금서: 우생유전계제 공 5 방 4 근 4 마력 24 영역: 어둠 / 특기: 숲, 날개, 눈물, 잠, 왜곡 진화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따라 탄생하게 된 금서.
장서: 단장에서 박탈되지 않은 장서들

단장 **<수秀>**

“가장 우수한 것을.”

서적경이 소지하고 있던 단장. 독자적인 장서가 있다.

공 4 방 4 근 4 마력 8

영역: 어둠 / 특기: 왜곡

넥타(계상) / 주문 / 왜곡 / 어둠3

자기 차례에 사용할 수 있다. 지정특기 판정에 성공하면, 목표는 본질이 왜곡되어 지금과 다른 종으로 변이해버린다.

“잔을 채워라. 그 잔을 들어라. 그리고 마셔라.”

뇌격 / 주문 / 우레 / 힘X

단장 **<우화>**

“그 날개를 활짝 펴리라.”

공 4 방 4 근 4 마력 8

영역: 노래 / 특기: 날개

악몽 소환 / 소환 / 범용 / 날개

비행 / 주문 / 날개

망각 / 주문 / 기관장서 문호 / 눈물

단장 **<**개화**>**

“꽃 피우는 것은.”

공 5 방 4 근 4 마력 8(-2) 일시적마력 5

영역: 꿈 / 특기: 숲, 잠

초기 소환 원형은 숲의 처녀

마법의 잠 / 주문 / 범용 / 잠

개찬 / 주문 / 금서마법

관찰 / 장비 / 금서마법

서적경 **<**멘델의 계상법칙**>**

공 4 방 4 근 4 마력 8

진정한 모습: 붉은 꽃과 흰 꽃의 나선 줄기 (효과: 정신 집중)

<어둠**>** 영역의 단장을 소지 중.

영역: 짐승

혼의 특기: 우열원리

특기: 부패, 왜곡, 미래, 꽃, 분노

긴급 소환
서검 소환 / 소환 / 학파마법: 범용
광기의 생명 / 주문 / 학파마법: 이상향 / 왜곡
불멸 / 장비 / 학파마법: 이상향
영적 질병/ 주문 / 아방궁마법 / 부패
금주 / 장비 / 서공마법
포식 / 주문 / 금서마법 / 미래(습득)

우화한 존재 (*문호의 인맥 적용 대상입니다.) 공 6 방 3 근 5 마력 10
영역: 짐승 특기: 벌레 비늘 날개 환각 배신
반쪽 달의 가호 / 장비 / 마력이 0이 되었을 때 꿈 영역에서 무작위로 특기를 선택해서 판정한다. 성공하면 마력을 1d6만큼 회복하여 도주한다. 아름다운 날개 / 장비 / 이 마법을 습득한 캐릭터와 마법전을 하는 캐릭터는 매 라운드의 최초에 <환각>으로 판정해야 한다. 실패하면 그 라운드 동안 【방어력】이 1이 된다.

- 헤데라 장면표**(1D6)**

1: 바람이 불 때마다 비늘들이 부딪혀 풍경소리처럼 울린다. 맑고 영롱한 음색이 숲을 채운다.

2: 나비들이 곁을 맴돌며 춤춘다. 날갯짓에 반짝이는 가루 같은 것이 떨어져 내린다. 몽환적인 빛이다.

3: 숲이 당신을 환영하고 있다. 족히 몇백 년은 된 고목의 줄기가 어머니의 팔처럼 뻗어져 다정히 감싼다.

4: 바닥에 수많은 나비의 잔해가 있다. 진화에 실패한 그들은 이렇게 종의 밑거름이 되어버린다.

5: 기묘한 초음파가 공기를 흔든다. 그들만의 언어일까? 어쩐지 어지럽다.

6: 고목 아래는 울창한 가지에 가려 빛이 한 점도 들어오지 않는다. 세계에서 유리된 듯 까맣기만 한 구멍 안에서 어둠 마소 1점이 발생한다.